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31 호

2020 년 7 월 15 일

- 목 차 -

■ 발간물

1. 행동의 10 년을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

■ 리더스 서밋 2020(Leaders Summit 2020) 특집

1. COVID-19 이후의 미래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SK 텔레콤
2. [SDGs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물을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3. [SDG 미디어 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 타라 월퍼트(Tara Walpert) 구글 글로벌 광고 마케팅 개발 총괄이사 외 2 명

■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nder Equality Korea)

1. [글로벌 성평등 우수 이행 사례] RELX Group
2. 국내 기업 성평등 우수 이행 사례 모집

■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1. [반부패 투자동향 ①] 노르웨이 국부펀드
2. [코로나와 반부패 ②] TI-UK 준법감시인을 위한 6가지 팁

■ UNGC 회원 뉴스

1. 인천항만공사,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분야 국제적 규범 준수 강화
2. 충남연구원 '공공기관 인권경영과 반부패' 특강
3. LG화학, 탄소중립 성장 선언...업계 첫 RE100 추진
4. GS칼텍스, 재활용 소재 복합소재 확대...ESG 역량 강화 박차

■ CSR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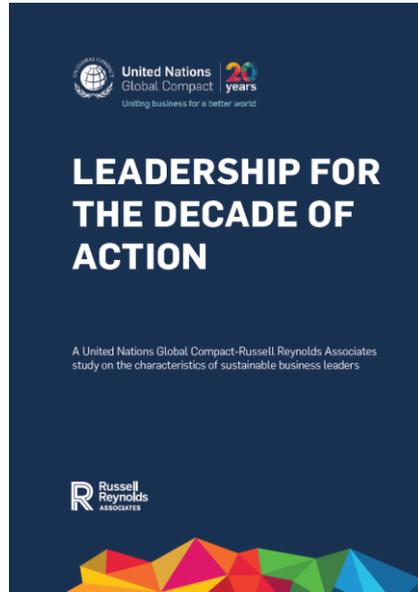
1.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2.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난해 처음으로 원자력 추월
3. "공공부문 채용공고 때 일·가정 양립관련 정보 담아야"
4.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발간물

1. 행동의 10년을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



유엔 ‘행동의 10년’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이츠(Russell Reynolds Associates)와 함께 ‘행동의 10년을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글로벌 시스템의 취약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더딘 성과를 강조하며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더 야심 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FIGURE 1: SDGs에 대한 성과 부족(Lack of progress towards the SDGs)



7억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orld Bank (2018),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 2015 Forecasts.



현 추세대로라면
경제적 성 격차
해소에는 약 257년이
걸릴 것입니다

WEF (202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현 추세대로라면
이번 세기에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3.5도 상승할
것입니다

UNEP (2019), Emissions Gap Repor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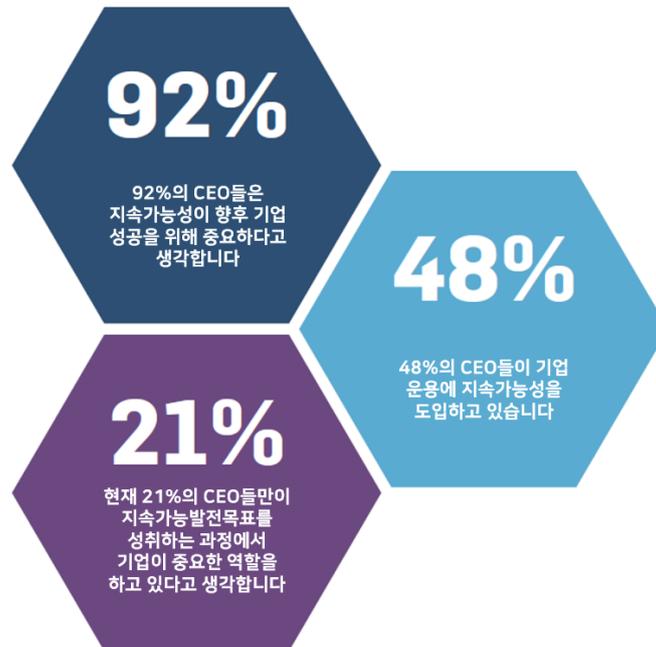


매일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Science (2015), Plastic Waste Inputs From Land Into The Ocean.

“우리는 세계를 재건하기 위한 짧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의 전략, 목표 및 계획이 SDGs를 완벽하게 내재화해
더 강하고 회복탄력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



2019년 유엔글로벌콤팩트와 Accenture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2%의 최고경영자들은 지속가능성이 향후 기업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48%만이 기업 운용에 지속가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21%만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선도 기업 리더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는 데 있어 남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는 55명의 CEO 및 이사회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의 동기, 경험, 능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속가능성을 리더십 프레임워크에 내재화 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각 리더의 배경과 경력을 조사해 분석하고 이를 포춘 500대 기업 중 지속가능성 순위가 낮은 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보이는 리더들은 동기 부여와 성장 과정 및 경력 개발 과정에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리더들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45%), 비슷한 수준으로 다양한 산업 부문과 국가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높인 사례도 많았습니다(43%). 이외에도 12%의 리더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

THE BORN BELIEVERS

43%

THE CONVINCED

12%

THE AWOKEN

지속가능성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는 포춘 500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리더들은 더 많은 국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분야(Cross-Functional)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킨 리더들은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고, 기업 운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짐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뷰한 리더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확하게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더들은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중요한 경력을 쌓았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제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뷰한 지도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산업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리더십 기술을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55명의 리더들에게는 기업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지속가능한 의식구조(Sustainable Mindset)

지속가능한 의식구조는 기업운영이 사회·환경적 맥락과 분리된 상업 활동이 아니라는 목표지향적 신념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상업적, 사회적, 환경적 결과 전반을 혁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다차원 시스템 사고(Multilevel Systems Thinking)

지속가능한 리더는 자사의 조직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넘어 기업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적, 환경적 구조와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복합적 시스템을 포괄하여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및 행동을 주도합니다.

3. 이해관계자 포용(Stakeholder In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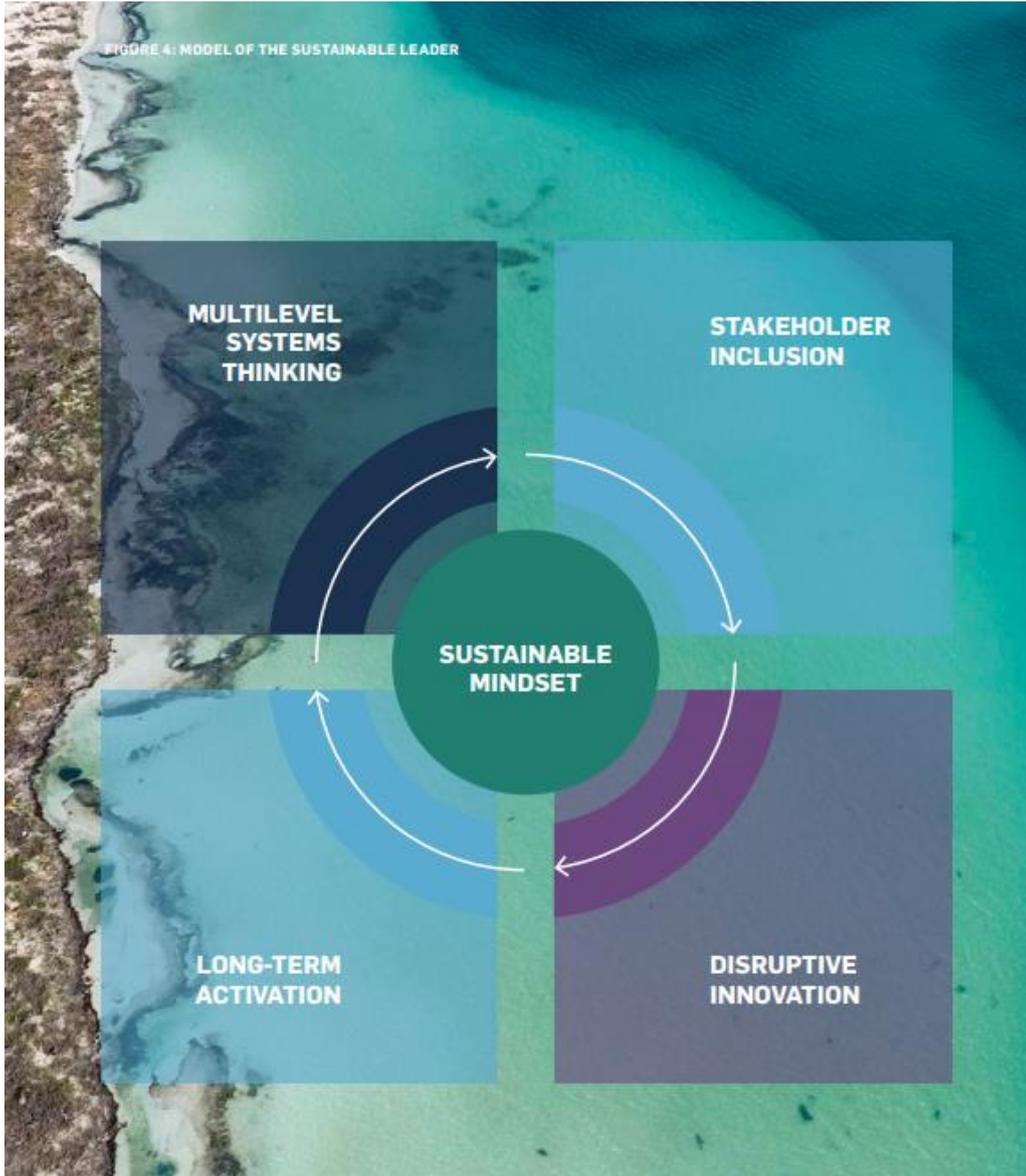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리더는 이해관계자를 관리하기보다 포용합니다. 그들은 넓은 범위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합니다. 또한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4.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지속가능한 리더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문제 해결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관료주의를 타파해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한 돌파구적인 혁신을 주도합니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동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장기적인 활동(Long-term Activation)

지속가능한 리더는 단순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결연한 행동과 투자를 주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고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잊고 새로운 형태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중심으로 미래의 리더들을 위한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함 카드리 Solvay CEO

<Sustainable Leadership in Action>

드니즈 모리슨(Denise Morrison), 前 Campbell's Soup Company CEO

Campbell 의 CEO 였던 드니즈 모리슨은 지속가능성 전략을 기업의 목표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넓은 범위의 고객, 공급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농장에서 테이블까지(farm to fork)” 음식이 오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통해 모리슨과 경영팀은 그들이 다룰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들(지속가능한 농업, 식품 안전, 다양성/포용 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영팀은 이해관계자들이 파악한 이러한 이슈들을 SDGs 에 연계해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다룸과 동시에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앤 캐언즈(Ann Cairns), Mastercard 부의장

Mastercard 의 해외사업부의 리더가 된 앤 캐언즈는 기존의 금융 기관에서 배제된 잠재된 고객층이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Mastercard 의 CEO 는 5 억명의 인구를 금융 제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로 퍼져 회사 전체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5 억명의 목표를 성취 후 새로운 목표는 10 억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캐언즈는 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상품을 만들 경우 기업의 시장이 확장됨과 동시에 고객의 금융 보안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시장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의 상업적 이익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캐언즈의 이러한 장기적인 사고방식은 Mastercard 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적 및 사회적 이익에 확신을 갖고 지속가능성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Visa 의 직원 수는 지난 10년 간 4배 증가했으며 그 중 다수가 목표지향적인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의 목표를 자사의 지표로 삼았으며, 이는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공유 가치를 만들어 내고 싶은 실력있는 이들을 끌어 모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켈리 주니어(Alfred Kelly Jr) Visa CEO

“우리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의 신입사원들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자사의 방침이 강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Microsoft 회장

더 나아가기: 기업 내 리더십 문화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CEO와 이사회 구성원이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내 리더십 문화에 접목해야 합니다.

최고의 조직은 리더 선정, 승진, 보상 및 개발을 추진하는 프레임워크와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리더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리더십 팀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경영진의 강력한 신호를 뜻합니다.

기업 내 리더십 문화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수칙이 필요합니다:

- Selection: 주요 임원을 선임할 때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Succession: 경영권 승계 제도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더십 잠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 Reward: 이사회, 최고경영자, 고위 경영진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 Develop: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한 사고방식과 리더십 자질을 리더십 개발 과정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지속가능한 리더십 = 미래 성공

CEO,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이 기대하는 바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리더들이 명확히 드러낸 공통점은 지속가능성이 바로 리더십 이슈이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의식구조와 리더십 자질이 요구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리더십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조직 구조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리더십 프레임워크와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EO 와 이사회 구성원들은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도하는 데에 있어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리더들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담당자 한 명을 고용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리더십이 소수가 아닌, 기업 내 모든 리더들이 갖춰야 할 자질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지금 바로 다뤄져야 합니다.

경영진 및 비경영진 리더십에 대한 논의에 있어 아래 두 가지 질문이 다뤄져야 합니다:

1

우리 기업의 리더들은 지속가능한 마음가짐과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2

우리 기업의 리더십 문화는 지속가능성을 자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있는가?

© 본 콘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러셀 레이놀즈 어소시에이츠가 함께 참여한 Leadership for the Decade of Action 에서 발췌, 번역 및 가공한 자료입니다. 무단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리더스 서밋 2020(Leaders Summit 2020) 특집

1. COVID-19 이후의 미래



2020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 리더, 정부 관료, 국제기구 수장들이 ‘보다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방법’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세션들이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미 있고 유익한 서밋 내용을 주제별, 세션별로 요약해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 순서는 <COVID-19 이후의 미래>입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기초강연과 분과 세션을 아울러 인권, 반부패, 기후변화, 민간 투자, 해양,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 19 라는 공동의 위기 이후 전 세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했습니다. 첫 기초세션은 코로나 19 이후 회복을 위한 UNGC의 10대 원칙의 역할을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토대: COVID-19 이후의 회복을 위한 10대 원칙**” 세션입니다.

UNGC 10대 원칙은 지난 20년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목적과 이념의 토대였으며, UNGC 회원사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에 방향성을 제시해 준 틀입니다. 이러한 10대 원칙에 기반하여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서 각각 기업과 사회의 행동을 촉구해온 UN 기구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셸 바살레 UN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엔 인권최고대표 △가이 라이더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가다 왈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입니다.

[고위급 세션] 지속가능성의 토대: COVID-19 이후 회복을 위한 10대 원칙

(Foundations of Sustainability:

How can Global Business use the Ten Principles to Navigate Recovery from the Pandemic)

■ 코로나 19 이후 회복을 위해 기업은 10대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UN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 미셸 바살레

- “코로나로 인해 기존 사회, 정치, 경제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불평등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야 한다.”
- “기업들이 그동안 주주를 위한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경제가 타격을 받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등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 UNEP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
 - “코로나 19 는 곧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독성 물질 등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 미래의 예고편이다.”
 - “특히 환경 문제는 많은 경우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과 인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세계적 인권 운동인 ‘Black Lives Matter’을 언급하며) “인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자산을 넓히는 일이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 가다 왈리
 - “코로나 19 로 인해 그동안의 경영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현 시점에서 UNGC 마지막 원칙인 ‘반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의 투명성, 신뢰, 건전한 지배구조는 민간 부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 단기주의적 시각과 의사결정이 우선시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기업이 윤리경영과 인권을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 “10 대 원칙과 같이 UNGC 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정책의 역할도 중요하다.”
 - UN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 바살레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과 10대 원칙(Ten Principles)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칙(principle)’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이러한 ‘골드 스탠더드’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위기의 시기에는 정부의 재정 및 경제부양책도 매우 중요하다.”

■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UNEP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

-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의 배경에는 대중으로부터의 요구도 있지만, 진전된 사고를 가진 정부가 하는 역할도 크다.”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 **UNODC의 가다 왈리**

- “건전한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충전하는 등 기업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주의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윤리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이 기업 활동을 세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소비자는 비윤리적인 기업을 보이콧하는 등 기업의 행동과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 “코로나 19 로 인해 드러난 사회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대중이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기업도 인류, 윤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영을 중시해야 한다.”

이어서 연사들은 해양에 기반한 블루 이코노미(청색경제), 환경에 기반한 그린 이코노미(녹색경제) 등 오늘날 기업이 포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하며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기업 의사결정과 행동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를 비롯하여 각 개인들도 환경보호 및 인권 존중, 윤리 준수 등 10 대 원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잊지 말고, 보다 야심 찬 수준의 노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당부와 함께 세션은 마무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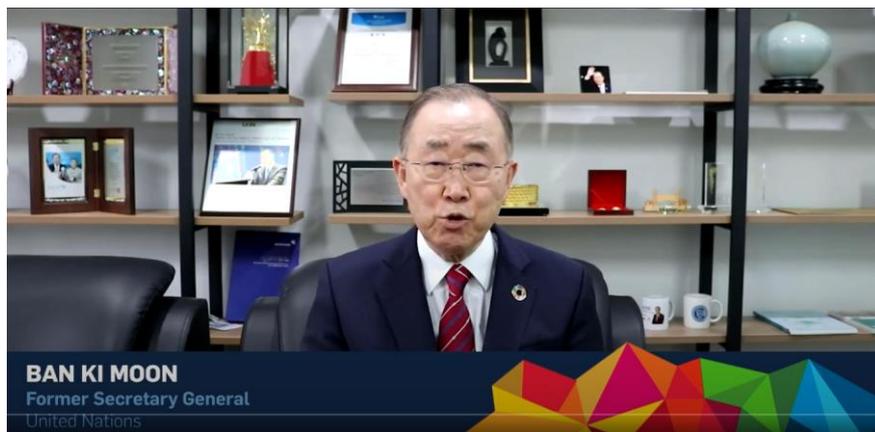
> **지속가능성의 토대: COVID-19 이후 회복을 위한 10 대 원칙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5OhUd9YOZtl>

[고위급 세션] 기후 앰비션: COVID-19 이후 1.5°C 목표 이행을 위한 연대
(원제: Climate Ambition: Uniting for a 1.5C future in a post-COVID world)



COVID-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 수단이 위협받고 있으며, 공급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불평등 문제는 심화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로부터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곧 지구의 건강에 달려 있다는 이해 하에 회복탄력적이며 탄소 제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션의 오프닝 연사인 반기문 유엔 제8대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기후 변화에 더해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따른 인종 문제 또한 국제적 대화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은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에 공명을 울리는 사안임을 강조한 반기문 유엔 제8대 사무총장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해야 하며,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당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 반기문 유엔 제8대 사무총장

-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 “오늘날 기업의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기업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진정한 탄소 감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국제 법제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 “코로나19는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기후를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결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 참가한 각계 인사들 또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목표를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에 기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금융 시스템에 반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전 세계 기업 및 정부의 변화를 도모하려면 좀 더 강제성 있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ACCIONA CEO 호세 마누엘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제 규범 내지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 “ESG 및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전세계 자본은 24조 달러로, 전세계 자본의 25%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는 나머지 75%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도록 둘 여유가 없다. 하루 빨리 전세계 비즈니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중심에 두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모아 기반 청년 환경 활동가 브리어나 프루엔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시민 및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프루엔은 정부 및 거대 기업들의 변화로 시작되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만 집중하기 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적 혁신 및 변화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청년 환경 활동가 브리어나 프루엔

- “온라인 연대,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획자, 청년들과 단체들의 자금 모금과 같은 이벤트 등을 통해 창의적 회복탄력성(creative resilience)을 높이는 것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의 해결책을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연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 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을 차후로 미룰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함께 연대한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패트리샤 에스피노사

- “코로나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세계적 재앙의 예고편으로 인식해야 한다.”
- “기후 변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임팩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다… 유엔의 2050 넷-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2020년 목표부터 달성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지에 실패란 없다.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더 밝고 청정한 미래는 가능하다.”

> 기후 앰비션: COVID-19 이후의 1.5°C 목표 이행을 위한 연대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AOYoQvIYjLg>

[심층 세션] COVID-19 이후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관점
(원제: The Investor Perspective on Post COVID-19 Corporate Sustainability)



금번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서는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변동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ESG 성과 및 지속가능한 금융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COVID-19 이후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관점” 세션(미국협회, 캐나다협회 주최)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간 ESG 투자 관련하여 책임투자자 및 생산자들이 환경(E)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업종에서 사회(S) 관련 지표에 관한 대화가 본격화되었으며, 사회 관련 항목을 측정 및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공유하여 앞으로도 투자 시장에서 ESG 통합과 데이터의 신뢰성 등은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나스닥(NASDAQ)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자 이반 하비**
 - “팬데믹 시기에 ESG(경제,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의 긍정적 효과를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 **Moody’s Risk Assessment 부사장 안나 쉐벳츠-앤더슨**
 - “ESG를 투자전략에 통합하는 것은 이미 주류화되었으며, 팬데믹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COVID-19 이후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관점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CH5nLDsShY>

[심층 세션] 해양과 COVID-19: 위기와 기회
(원제: The Ocean and COVID-19: Curr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코로나19의 영향은 투자 시장은 물론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해양에까지 미쳤습니다. 해양 운송은 세계 무역의 90%를 차지하며 의약품, 식품, 원료 등 주요 자재의 중요 공급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양 공급망은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해양 부문 전문가들은 팬데믹을 기회 삼아 심도 있는 해양연구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전문지식, 경험, 그리고 탄력적인 청색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이해관계자”이고 신기술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해양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 **국제해운회의소 사무총장 가이 플라튼(Guy Platten)**
 -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5만5천척의 선박에 120만 명의 선원이 고립되며 해양 공급망의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선원들의 건강과 전 세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각 정부의 협력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 **스톡홀름 복원 센터의 연구원인 로버트 블라지악(Robert Blasiak)**
 - “해양 유전자원은 혁신적인 제약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 해양과 COVID-19: 위기와 기회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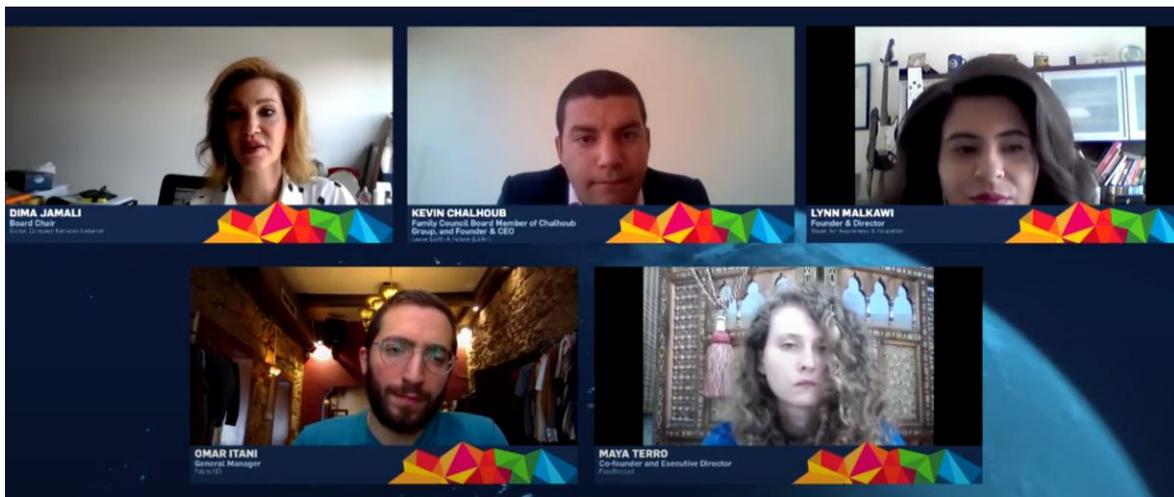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O5aw7-Vz8Fs>

[글로벌타운홀] 청년과의 대화: COVID-19를 보는 관점
(원제: A Youth Dialogue: Perspectives of the COVID-19 Pandemic)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화되면서 각국에서 청년의 고용불안정이 증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과의 대화: 코로나19를 보는 관점” (레바논 협회 주최) 세션에서는 중동 지역의 청년 사업가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체제에서 기업에게 호의적인 시장 분위기 조성,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FabricAID 총괄 책임자 오마르 이타니(Omar Itani)**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인스타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 생겨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각변동이 예고된 지금이 곧 비즈니스 기회이다”



> 청년과의 대화: COVID-19를 보는 관점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WMz6CMrkVM0>

다음 2020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특집은 SDGs를 주제로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SDGs 소식

1. [COVID-19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SK 텔레콤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의 무선통신사업, 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등을 포함한 한국최대의 이동통신회사로서, 시장점유율은 무선통신사업(MVNO제외) 약 48%, 초고속인터넷부문은 약 26%, IPTV부문은 약 30%입니다. SK텔레콤과 관계사는 유무선 통신 사업과 미디어·보안·커머스·IoT·모빌리티 등 New Biz 사업을 제공하며, 5G 통신 기술을 비롯한 AI, 빅데이터 분석, IoT, 양자암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AI·Mobility 영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중이며, Digital Transformation (DT)과 AI를 기반으로 Global ICT Leader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NCSI, KCSI, KS-SQI 등 대한민국 3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장 기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고객, 구성원,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 발전 및 인류의 행복에 공헌합니다.



SKT는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지원, ICT및 AI기반 디지털 포용정책, 영상/컨텐츠/교육 분야 등 3대 영역'에서 선도적 대응중입니다.

1)소상공인 사업지원 분야

유통망·협력사 위한 1100억 규모 상생안 마련

- 전국 유통망·네트워크 관리 협력사 등 현장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상으로 대리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350억 先 지급 및 매장 운영비 50억을 지원합니다.
- 협력사 상반기 공사 대금 일부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대금 330억을 先지급하였습니다.
- 대구/경북 유통망에는 휴대폰 매입대금 400억 결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동반성장 협약 맺은 중소기업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 SK브로드밴드도 110억 규모 협력사 유동성 제고 지원책에 동참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 서비스 'T-Deal'로 중소기업 지원

- 빅데이터 분석해 상품별로 구매 가능성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안내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인의 마케팅 비용은 무료, 상품 판매 통한 SKT 수익은 전액 사회 환원합니다.

-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며 중소기업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2만 명에게 '사장님 안심경영팩' 제공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만 명에게 매장 운영 패키지를 1년간 무료 제공합니다.
- '사장님 안심경영팩' 신청하면 누구나 즉시 이용...매장운영에 필요한 카드 매출 조회, 매장 위치 홍보, 알바 구인·관리 등을 원스톱 제공합니다.
- SK ICT 패밀리社, 전국 소상공인 대상 '사장님 안심경영팩' 공동 캠페인: 전국 28개 지역 '5GX 부스트파크' 제휴처 대상, ADT 캡스와 SK브로드밴드는 보안 서비스, 인터넷 및 IPTV 사용중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사장님 안심경영팩' 1년 무료혜택을 제공합니다.

한국 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와 5G 기반 제조 혁신 협력

- 중견/중소·소공인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SKT, 참여 기업에 5G 빅데이터 솔루션 '메타트론 그랜드뷰'를 1년 무상 제공합니다.
- '메타트론 그랜드뷰' 이용 시, 15% 비용 절감 및 설비 수명 20% 연장 가능합니다.
-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비용 부담을 줄여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2) ICT 및 AI 기반 디지털 포용정책

SK텔레콤 - 도이치텔레콤: '글로벌 코로나 위기, ICT로 함께 극복'추진

- SKT CEO, 양사 경영진 20여 명 참석 화상 컨퍼런스에서 'K - ICT' 협력을 제안하였습니다.
- 한국 5G·AI·지능형 네트워크 기술로 '코로나 부하' 걸린 유럽 위기 극복을 지원합니다. • 가교 역할 '테크 합작회사' 설립 계약. SKT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독일로 파견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ICT기업이 앞서서 변화 이끌어야" ... 5G 생태계를 확대합니다.
- 비대면 플랫폼과 생활 안전·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스마트 에이전트 솔루션, AR/VR 서비스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 5G /MEC기술/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솔루션 스타트업 공동 투자·AR/VR 협력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 AI 돌봄 서비스 (NUGU 시니어) 제공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등과 협력 기반 '코로나19 능동 감시 시스템 (AI 스피커가 자동으로 전화해 코로나 관련 응답자의 건강 상태를 Check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안전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대상, AI 스피커를 활용한 건강, 복지, 행정 안내 서비스 확대 및 강화 예정입니다.
-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일환인 '두뇌톡톡' 서비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인지교육을 제공하여 치매지연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SK텔레콤 - 경북경찰청, 빅데이터 기술로 국민 안전 제공

- 코로나19 종결까지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 '지오비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경북경찰청, '지오비전' 활용해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핀 포인트' 순찰합니다.
- 국내 유일 5분 단위로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정밀도는 기존 대비 5배 향상되었습니다.

3) 영상/컨텐츠/교육 분야

AI 명상서비스 '누구 마음보기' 제공

- 사내 구성원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기획, 코로나19로 일반 고객에도 오픈하였습니다.
- 15만 다운로드 명상 앱 '마보'와 손잡고 총 41종의 명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마보'가 서울의료원과 협업하여 격리환자, 의료진들을 위해 만든 콘텐츠도 포함합니다.

온라인 개학 맞아 '서로' 가상교실 제공

- 김포 신봉초등학교와 3개 학급 대상으로 '서로' 가상교실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 그룹 영상 통화 '서로'·키즈 안심 앱 'ZEM' 등을 통하여 원격 수업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 "시범 서비스로 얻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할 것"입니다.

'점프 AR' 오픈 갤러리, 어린이들에게 'AR 놀이터'로 제공

- AR 기반 동물 사진·영상 공유…서비스 공개 2주간 약 3천 여장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 레서판다·알파카 등 AR동물과 찍은 사진들을 SNS로 이용자와 공유합니다.
- 코로나19로 집 밖 못 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손안의 가상 놀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개혁을 통한 '상시 Digital Work' 제도 시행

-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일하는 방식의 시간/공간/보안에 대한 Reframing'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계기로 삼아서 구성원 개인에 대한 자율적 Empowering을 회사가 부여합니다.

- SK텔레콤은 2017년부터 일하는 방식 변화를 고민했으며, 클라우드·모바일에 기반을 둔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과제를 추진, 2019년 8월 MS와 Digital Workplace를 구축하여 MS 통합협업 플랫폼인 'Teams'를 전사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 Teams 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동 편집, 영상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며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시간 및 장소와 무관하게 접속합니다.
- 문서의 공유/편집은 물론 화상 회의까지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므로 재택근무시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Remote Digital Work System: 원격회의/문서 공동 작업/ 외부 BP와의 원격회의/ 팀채널 개설, 소통 등 다양한 Communication기능 등)
- 재택근무 플랫폼 '서로 영상통화', 최대 55명 동시 영상통화·채팅, SKT T전화 '서로' 등
- 2월말~4월초까지의 6주간 재택근무시행이후 기 축적된 Hybrid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COVID19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유연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직/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운영하는 '상시 Digital Work'를 시행중입니다.

업계 최초 '콜센터 구성원' 재택근무 선도적 전격 시행 ('20년 3월 12일)

- 희망하는 구성원 모두 재택근무 실행, 통신 업계 최초로 선도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 사무실 근무하는 구성원 위한 감염 예방 지원책도 대폭 강화. 사무실과 같은 수준의 근무 환경 구축 등 업무 시스템을 최대한 지원합니다.
-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구성원 대상 ▲마스크 등 방역물품 상시 제공 ▲위생물품 구매 지원 ▲사무실 내 근무 이격 거리 보장 등 감염 예방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실시간 생중계 첫 '온라인 주총' 개최('20년 3월 26일)

- 주총현장 동영상 생중계, 온라인에서 질문하면 경영진이 현장에서 답변하였습니다..
- CEO가 주주와 열린 소통. 5G 및 New ICT 사업 성과와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경영진의 현장 프레젠테이션과 실시간 질의응답, 전자투표제 선제적 시행 등 새로운 시도는 소액 주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함은 물론 국내 주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SDGs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물을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누카(Nuuka)는 주거, 상업 그리고 공공 건물의 에너지 사용 및 실내 공기질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산출합니다. 누카의 지능형 분석 플랫폼은 건물 관리자가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인지하고 이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카는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에너지 사용, 실내 공기질 및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누카 소프트웨어는 개별적인 상업용 건물 관리와 더불어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거용 건물 회사의 활용에 적합합니다.

누카의 소프트웨어는 에너지 측정 시스템과 같은 기존 건축 기술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자사의 분석 플랫폼에 통합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건물 관리자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건물 내 실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스마트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석 기능은 결함을 즉시 식별하고, 불규칙한 에너지 사용을 파악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누카는 자사의 고객이 기존 대비 최대 35%의 에너지를 절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중순, 누카는 헬싱키 내 약 1,000 개 공공 건물에 스마트 건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입찰을 수주했으며 이에 따라 2035 년까지 헬싱키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왜 누카에 주목해야 할까요?

빌딩은 유럽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 그리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를 차지합니다. 스마트 건물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관리업체의 에너지 비효율을 정확히 식별하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지속가능한 에너지

스마트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건물 소유자가 에너지 비효율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함으로써, 누카의 소프트웨어는 헬싱키와 같은 자치단체가 공공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고 도시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1. [SDG 미디어 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 타라 월퍼트(Tara Walpert) 구글 글로벌 광고 마케팅 개발 총괄이사



〈좌측부터 타라 월퍼트(Tara Walpert) 구글 글로벌 광고 마케팅 개발 총괄이사, 나탈리아 베가(Natalia Vega) Creative Nations 설립자, 안드레 르 마수리에(Andre le Masurier) RG/A 광고 담당이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매월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타라 월퍼트(Tara Walpert) 구글 글로벌 광고 마케팅 개발 총괄이사, 나탈리아 베가(Natalia Vega) Creative Nations 설립자, 안드레 르 마수리에(Andre le Masurier) RG/A 광고 담당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두 사람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reative Nations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질문에 베가는 “Creative Nations는 Global Brain Foundation에서 런칭한 이니셔티브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소통하고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임팩트, 지속가능성의 상호작용, 비즈니스 성장 촉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Creative Na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런칭과 현재 사회 내 일어나는 변화를 보며 구글은 광고의 미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월퍼트는 “커뮤니케이션은 이야기를 전달하여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있어 구글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광고에 담긴 메시지가 더 합리적이고 동시에 빠른 전달력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UN 및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기관들과 협력하여 LittleXLittle이란 캠페인을 런칭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할 것을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유했다. 이 6초의 광고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임팩트를 전달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구글은 이러한 광고 방식을 통해 유엔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광고를 통해 변화의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회사로서 기업의 목적과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광고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 마수리에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산업과 기술을 융합하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술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의 이익과 지속가능성 추구는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지속가능성은 비즈니스와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 부서만이 다루는 문제가 아닌 CEO, CFO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된다. 이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Creative Nations가 다양한 브랜드 및 에이전시와 어떻게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는 어떻게 글로벌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베가는 “우리는 6년 동안 유엔 이니셔티브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그 과정 속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와 브랜드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엔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이 다가왔다. 우리는 아직도 바뀌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창의성과 기술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월퍼트는 “기술은 우리의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퍼트리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글로벌 솔루션 및 캠페인을 알리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기술은 사람들에게 더 쉽고 간편하게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혁신은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마수리에는 “변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60년대, 70년대생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젊은 세대들은 지속가능성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가치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이며 브랜드와 기업은 CEO, CMO, CFO의 관심 분야와 관점을 넓히며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탄력을 받고 재정이 뒷받침되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월퍼트는 “목표와 이익추구선이 맞지 않을 때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이익추구 방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들이 생각을 바꿔 기업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의 10년 간 행동을 끌어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nder Equality Korea)

1. [글로벌 성평등 우수 이행 사례] RELX Group



리드 엘제비어(RELX) 기업 현황	
업종 및 규모	업종 : 미디어 매출 : 2,101만 파운드 (2019)
UNGC 가입 연도	2003.1. 23
주요 성 평등 정책 및 목표	<경력개발을 위한 멘토링과 경제적 지원 > <신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 구축 >
성 평등 현황	여성 직원 비율 : 50% (2020) 여성 임원 비율 : 36% (2020)

APPROACH



리드 엘제비어(RELX)는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들과 기업 고객들에게 정보, 분석 자료 및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정보 분석 기업입니다. 정보 분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2011 년, 기업 내의 성별 다양성의 장점을 인식한 앤서니 햅굿(Anthony Habgood) 회장은 2020 년까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을 3 분에 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2014 년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가입하며, 성평등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2020 년 기준으로 RELX 그룹에서 여성은 이사회 36%, 비상임이사회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 전체의 성별 균형 목표 달성을 위한 RELX 그룹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TRATEGY



경력개발을 위한 멘토링과 경제적 지원

RELX 그룹은 혁신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광범위한 아이디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험을 가진 매우 재능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장벽을 허파하고,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멘토링과 경제적 후원의 중요성을 인지한 RELX 그룹은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진 여성직원을 선정해 멘토링, 교육 및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성 기술자에게 롤모델을 연결해주는 ‘Women in Tech’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기술자 수를 증가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직원들에게 고위운영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멘토를 소개해 줌으로써 여성직원들이 자신의 발전 방향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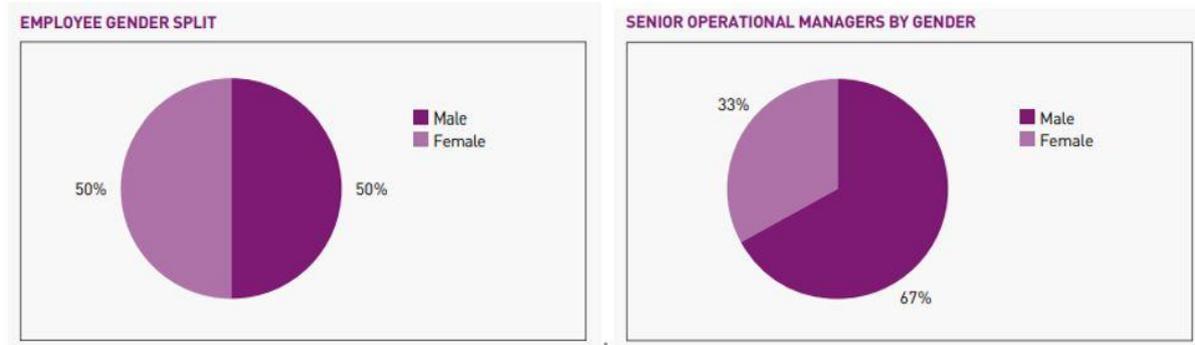
RELX 그룹은 현재 전 사업에 걸쳐 23 개의 여성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팀 개발, 성별 균형지도 및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문제 탐색 및 실질적인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클루전 대시보드(Inclusion Dashboard)를 통한 신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 구축

RELX 그룹은 사원의 역할, 기능 및 근무 기간을 포함한 범주에 따른 성별 균형을 보여주는 인클루전 대시보드(Inclusion Dashboard)를 개발해 실시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고위 경영진의 인적 통계, 사내의 변화, 진행 중단 시점, 성별임금격차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한 성평등 관련 통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현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RELX 그룹이 성평등의 구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용이하게 돕습니다.

IMPACT



성 다양성 정책은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는 성평등에 대한 헌신으로 2019 년 블룸버그 성평등 지수에 선정되었으며 인권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의 2018 기업 평등 지수에서 100%를 득점하고 CEO Action for Diversity and Inclusion 을 지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 년 기준으로 전체 정직원 중 28.2%, 관리직 20.4%가 여성이었으며 13 명의 이사회 중 두 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전세계 지사의 평균 남성 직원 임금에 대한 평균 여성 임금의 비율은 2019 년 기준으로 98.2%입니다.

출처:

- We Empower G7 (2020).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on Boards and in Leadership](#)
- RELX (2020) Sustainability Report 2019

GEK 에서 보기

1. 국내 기업 성평등 우수 이행 사례 모집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우리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인식 제고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Gender Equality Korea, GEK) 웹사이트를 런칭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기업들이 기업 내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동향, 글로벌, 국내 기업 사례 및 TGE, WEPs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웹사이트로서, 기업들의 여성역량강화 향상을 위한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GEK 는 국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기업 성평등 정책 도입 사례**를 모집합니다. 각 기업은 사례 공유를 통해 자사의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성 다양성 확산에 대한 기업의 철학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기업 간 동료학습을 도모해 우리나라 전반의 기업 여성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과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국내기업 사례 예시

- [CJ제일제당](#)
- [KB금융지주](#)
- [교보생명](#)
- [\(주\)롯데](#)
- [SK텔레콤](#)
- [슬로워크](#)
- [유한킴벌리](#)

▪ 사례 구성

1. 기업 현황: 업종 및 규모, UNGC 가입 연도, 주요 성평등 정책 및 목표, 성평등 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링크
2. Approach: 기업 내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도입 배경과 다양성 확산을 위한 기업의 가치 또는 목표
3. Strategy: 기업 내 성평등 관련 주요 프로그램 및 정책
4. Impact: 성평등 정책 및 다양성 정책에 따른 주요 결과와 임팩트

- 양식

- 하단 링크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 ※ 사진 및 로고는 고화질 파일로 별도 제출 요망

- 일정

- 상시 모집

국내 기업 사례 공유나 GEK 에 대한 문의사항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여지원 연구원 (jwyeo@globalcompact.kr, 02-749-2150), 공유진 연구원 (ykong@globalcompact.kr, 02-749-21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 사례 바로가기

사례 양식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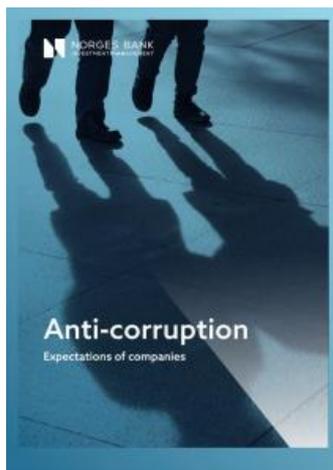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1. [반부패 투자동향 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의 국제사업부문을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운용기관인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NBIM)은 무기, 석탄, 담배 등 환경 또는 사회에 유해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업 윤리에 대한 평가는 은행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2019 년에만 2,296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1,826 개 기업에 ESG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42 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철회하였고 5 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는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투표권 행사를 통해 투자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ESG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NBIM 은 2008 년부터 내부적으로 아동 권리, 기후변화, 물관리, 인권, 세금 투명성, 반부패, 해양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 보고서’(Expectations of Companies)를 작성해 자발적으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기대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과 기대사항에 부응하지 못한 기업, 다른 기업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송, 벌금 부과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 NBIM 투자 배제 리스트에는 복수의 국내 기업도 올라 있다. 외부적으로는 노르웨이 재무부 산하 윤리위원회(Council on Ethics)의 기업 윤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NBIM 이사회가 배제, 주시, 투표권 행사에 의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투자 결정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 반부패 ‘기대 보고서’〉

2018 년에는 반부패를 6 번째 ESG 분야로 ‘기대 보고서’에 포함하면서 부패를 시장왜곡, 기업운영 효율성 저하, 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 기업 명예와 주주가치 훼손의 주범으로 꼽았다. 더 나아가, 부패

이슈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다고 보고 기업의 리더십으로부터 활발한 반부패 활동을 기대 및 촉구하고 있다.

NBIM 기업 반부패 평가 기준 및 기대 사항		
뚜렷한 반부패 정책 확립	기업 운영에 반부패 정책 내재화	반부패 활동 보고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내 부패 방지, 식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절차 마련 종합적인 부패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한 반부패 정책 마련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부패 척결을 위한 경영진의 다짐 전달 반부패 정책 이행 상황 점검 및 책임체계 구축 협력업체들을 위한 행동규범 제정 (금융)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실사를 통해 협력업체의 실질소유자를 파악하고 사업 내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경력직 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유닛 구축 임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 제공 내부고발자 보고 및 보호를 위한 기업 문화와 체계 구축 (금융) 모든 비즈니스 관계와 거래에 대한 기업 및 고객 실사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반부패 정책 및 문제 해결 과정 공개 독립된 외부 단체의 정기적인 감사와 이사회와의 감사 결과 공유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과 방법 공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 마련 관련 규제 및 입법 기관, 이해관계자, 산업협회, 전문기관과 기타 기업들과 협력하여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해결

NBIM은 지속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반부패 활동에 구체적인 방향성 및 자문을 제공해왔다. 2019년 NBIM이 반부패 관련 기업 윤리 평가를 수행한 기업은 총 250 곳이었다. 그 중에 7개 기업에 반부패 감사와 정보 공개에 대한 조정을, 14개 기업에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준과 문제 완화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석유 관련 기업들이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입찰 과정에서 부패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관련 기업 10곳에 중개업체에 대한 기업실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세금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21개 기업에 NBIM의 기준에 맞는 세무전략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정책 조정을 요구하여 Anglo America PLC와 Royal Dutch Shell PLC로부터 추가적인 세무보고서 공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Eni SpA와 Saipem SpA의 경영진과 10차례 만나 두 기업 운영에 반부패 정책 내재화, 반부패 감사 및 문제 관리 절차 구축, 새로운 반부패 전담 부서 설립 등을 달성하였다. 2019년 높은 반부패 리스크로 인해 배제 조치가 내려진 곳은 Petroleo Brasileiro SA 1 곳이었다.

출처: 노르웨이은행 투자운영회

BIS에서 보기

2. [코로나와 반부패 ②] TI-UK 준법감시인을 위한 6 가지 팁



Sophie Ogilvy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프로그램 디렉터

코로나 19 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부터 업무 및 소통 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그 누구보다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기업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팀(Business Integrity Team)은 준법감시인들을 위한 6 가지 팁을 준비했다.

1.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확실한 리스크 관리 체계는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해 사업 모델 또는 공급망이 크게 바뀌거나 의료 장비 및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새로운 지역 또는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뇌물 및 부패 리스크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와 규정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의 ‘부패 리스크 진단 가이드’(Diagnosing Bribery Risk)는 기업이 부패 리스크 평가 방법과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털’(Global Anti-Bribery Guidance Portal)은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별 반부패 법률을 요약해준다.

2. 반부패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 누구보다 기업 최고 경영진이 가장 먼저 청렴성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예를 들어, 기업 가치와 우선순위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업 임원들이 부패와 뇌물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국투명성기구가 최근 발간한 ‘기업 투명성 보고서’(Open Business Report)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보고서는 기업윤리와 반부패 및 뇌물방지 이슈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투명성이 고객, 투자자, 임직원, 그리고 일반대중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임을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든 팀원이 있다면 ‘기업 투명성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들과 기업이 현재 공개하는 정보들을 비교해보는 업무를 맡겨봐도 좋을 것이다. 타 기업의 사례와 비교하며 ‘왜 우리는 공개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윤리적인 로비 활동 및 이슈에 대한 점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로비는 불법이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더 많은 로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은 부당하게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영국투명성기구의 2018년 ‘기업 정치관여 인덱스’(Corporate Political Engagement Index)를 사용하여 기업의 로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4. 자가진단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 또는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부 감사와 조사 또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성과 절차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 영국투명성기구는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을 통해 여러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과 리스크 평가, 기업실사, 협력업체 관리 등을 포함한 18개의 주제에 대해 교육 모듈을 제공한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글로벌 법적 요구사항과 우수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 반부패 벤치마크’(Corporate Anti-Corruption Benchmark)를 제공한다. 2020년 ‘기업 반부패 벤치마크’는 4월 6일에 런칭 되었으며, 현재 참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다.

5. 영업 담당자들이 출장을 갈 수 없는 지금이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할 기회다

코로나 19에 대한 위험이 점차 줄어들고 영업 담당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투입되기 전에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준비된 교육 자료가 없다면 영국투명성기구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한다면 온라인 대면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

6. 기업의 윤리적 기준 및 요구를 행동규범 등을 통해 공급업체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라

현재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업체들 또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제 3자 관리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르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에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에는 공급 및 계약업체 관리를 위한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변해가는 리스크에 대한 공급업체와의 소통, 철저한 기업 실사와 감사에 대한 합의를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고 있다.

정보 공유와 반부패 지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팀은 기업 반부패 및 뇌물 방지(ABAC)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수십 년간 증거기반의 전문가 조언과 지식을 정리하여 본 기사에서 소개된 보고서와 같은 우수 사례를 정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와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은 현재에도 정보 공유와 반부패 지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 사례 공유 또는 영국투명성기구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businessintegrity@transparency.org.uk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영국투명성기구 프로그램 디렉터 *Sophie Ogilvy* 의 기고문을 번역하였습니다.

BIS 에서 보기

UNGC 회원 뉴스

1. 인천항만공사,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분야 국제적 규범 준수 강화



- 인천항만공사는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분야에 대한 국제적 규범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참여한다고 발표함
-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전환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중이며 2020년에는 항만 야드트랙터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통해 항만의 대기환경 개선사업 시행 중
-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항만분야에 있어 선도적으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항만 관계기관 및 민간 업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경기일보

2. 충남연구원 '공공기관 인권경영과 반부패' 특강



- 전국 지방연구원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경영센터를 개소한 충남연구원은 7월 8일 개소 1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인권경영과 반부패'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함
- 특강에는 충남도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강사로 발표함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부패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원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부패가 인권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함
- 박석범 사무총장은 '기업과 인권 글로벌 동향과 사례'를 발표하며 인권의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국내 추진 동향과 각 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점검함

내일신문

3. LG 화학, 탄소중립 성장 선언...업계 첫 RE100 추진



- LG화학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난해 수준인 1천만톤(t)으로 억제하는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함
- 또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RE100’ 캠페인에도 국내 기업 처음으로 동참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표함
- LG 화학은 ‘환경과 사회를 위한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자원 선순환 활동 ▲생태계 보호 ▲책임 있는 공급망 개발·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함
- 2050년 목표를 이루려면 4천만 t 규모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함에 따라 공정·설비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기술 개발·도입 등을 적극 추진함
-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와 친환경 플라스틱 등 ‘자원 선순환’ 제품 개발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더불어 폐배터리 재사용에도 적극 나서며 고객사에 납품했던 배터리를 수거하여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중

4. GS 칼텍스, 재활용 소재 복합소재 확대...ESG 역량 강화 박차



- GS 칼텍스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강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복합수지를 기반으로 자원 효율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원료 적용 확대에 나섬
- 지난 2 일,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이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의 10%를 돌파했으며,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을 위해 재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연간 6.1 만톤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GS 칼텍스는 2010 년부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 사업에 착수했으며 연간 생산량은 초기에 비해 2.5 배 이상 성장한 2 만 5000 톤에 달함
- 이에 대해 허세홍 사장은 “기존의 채굴·사용·폐기에 의존하는 자원 소모적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폐기물 최고화에 따른 효율적 사용으로 자원 순환 비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이 필수”라고 강조함
- 현재 GS 칼텍스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절감액이 12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파이낸셜신문

CSR 뉴스

1.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힘
- 그린 뉴딜을 통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산업경쟁력 강화 및 녹색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함
-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함
- 2022년까지 68조원, 2025년까지 160조원의 투자를 통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2025년까지 창출할 계획

연합뉴스

2.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난해 처음으로 원자력 추월



-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량을 앞질렀으며 석탄 발전량은 역대 최저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에너지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14.0% 증가한 2 천 805TWh(테라와트시)로 집계 되었으며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9.3%에서 10.39%로 증가함
- 우리나라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로 증가했으나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4.5%)의 3 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석탄발전 비중은 40.8%로 OECD 평균(22.2%) 보다 2 배 가까이 높음
-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여전히 원자력 발전 비중은 25%로 OECD 국가 (17.9%)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연합뉴스

3. “공공부문 채용공고 때 일·가정 양립관련 정보 담아야”



-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채용공고에 모·부성 보호제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함
-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노동환경 분야 생활 체감형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함
-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부성 보호와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고용부와 기재부에 권고했으며, 현재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낮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이외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관계부처에 전달했으며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함

서울신문

4. 300 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制’ 도입



-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 인 이상 사업장 2978 곳 조사 결과 단체 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50%인 1492 개로 집계됨
- 단축근무 활용 기업은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받게 됨
-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 인당 40 만원,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 만원, 대기업 월 30 만원이며 임금감소보전금은 단축 시간에 따라 60 만원 또는 40 만원 지급함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난 5 월 기준 1156 곳으로 단축 사유는 임신이 1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 건강 330명 순으로 나타남

서울신문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2곳입니다.

- (주)비엔케이금융지주
- (주)케이에이치메디칼

2. COP/COE 제출회원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전 KDN(주)
- GS 건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LG 화학,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KDB 산업은행,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